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 * 영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5.09-2015.12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학교가 생각보다 크진 않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물 3개와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듯 하다. 하지만 도서관은 커서 숙제를 하거나 조별과제, 공부를 하는데 이용하기가 좋았다. 위치는 다운타운에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스카이트레인이 있어 교통이 용이하다.</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첫 주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레벨이 나뉘게 된다. 선생님은 총 2분이시고, 한 반에 12~15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듣는다. 주로 중국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일본, 대만 학생들도 몇몇 있다. 수업은 오전(8:30-12:20)과 오후(12:30-4:20), 두 타임이 있다. 수업은 2시간 수업 후 약 20분의 쉬는 시간, 그 후 2시간 수업의 형식이다. 수업은 Reading과 Listening 수업이 주고, Speaking은 저 두 수업을 통해 서로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과 발표, 프레젠테이션 과제를 통해 연습하게 된다. Writing은 일주일에 1번 정도 글을 쓰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분위기라 지루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과제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많아진다. 주로 과제를 하는데 2~3시간이 소요된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첫 주에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다. 수업 외에 다른 외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i-café와 i-sports 등이 있고, 동아리도 들 수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월 달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8월이 끝나간 시점에 도착하여 아쉬웠다. 9월 중반부터 가을 날씨로 조금은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10월 후반부터는 비가 많이 내렸다. 심할 때에는 일주일에 4~5번이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굉장히 추웠다. 내가 체감하기에는 12월 중 후반은 한국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았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생각했던 것에 비해 굉장히 안전했다. 다운타운 내에 위험한 거리가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저녁까지는 안전하게 놀 수 있었다. 하지만 밤 늦게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 다운타운에는 노숙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4개월동안 생활하였다. 나의 홈스테이 가족은 중국계 캐나다인이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 중국어는 전혀 못하셨다. 홈스테이는 1~2층은 홈스테이 가족이, 반지하에서는 내가 생활하였다.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는 홈스테이 가족을 보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다. 1주일에 하루, 청소와 빨래를 하는 날이 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분들이 주로 아침에는 시리얼, 점심에는 샌드위치를 챙겨주셨다. 저녁에는 주로 면 종류와 빵, 감자요리 등을 굉장히 즐겨 드셨다. 가끔은 날 위해 밥을 준비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홈스테이분들이 해주시는 음식을 그리 좋아했던 게 아니라서 외식도 많이 하였다. 다운타운에 가면 한인 음식점도 꽤 있기에, 가끔 한인 음식점이 생각나는 날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밴쿠버에는 스시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부분 외식할 때 스시를 많이 먹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음식 가격들은 한국에 비해 꽤 비쌌다.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팁도 줘야하기 때문에 외식 값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홈스테이가 학교에서 좀 멀어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했다. 거진 30분 걸렸다. 주요 교통은 버스나 우리나라 전철 같은 스카이트레인이 있다. 학교 근처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어서 학교에서 다운타운까지 약 15분이면 갈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ANA항공-약 900,000원	
Fees		
보험료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약 80,000원	
숙소	약 190만원 + \$1260	한국에서 약190만원(수수료+2달치 비용) 먼저 송금, 캐나다 현지에서 나머지 2달치 비용 \$1250 지출
식비	외식-한달에 \$150~*4=\$600~	

교통비	매달 \$91*4=\$364	먼슬리패스
책값	\$35	
기타1	핸드폰요금-매달\$46*4=\$184	
기타2	용돈(+α)	
기타3		
합계	약 288만원+\$2400+α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드라이거나 고데기 같은 제품은 현지에서 구매해도 좋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온 드라이거나 고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가 자주 오기에 우산도 꼭 챙기면 좋다. 짐이 많다면, 굳이 한국 음식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운타운 내에도 한인 마트가 있어서 한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라면 같은 한국음식을 살 수 있다. 밴쿠버도 12월이 되면 한국만큼 춥기에 어느 정도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한다. 홈스테이 가족의 선물과 후에 헤어질 외국친구들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폐 천원 권을 열 장 정도 가지고 갔는데, 후에 헤어 질 때 작은 선물로 쓸 수 있어 좋았고, 외국 친구들도 좋아하였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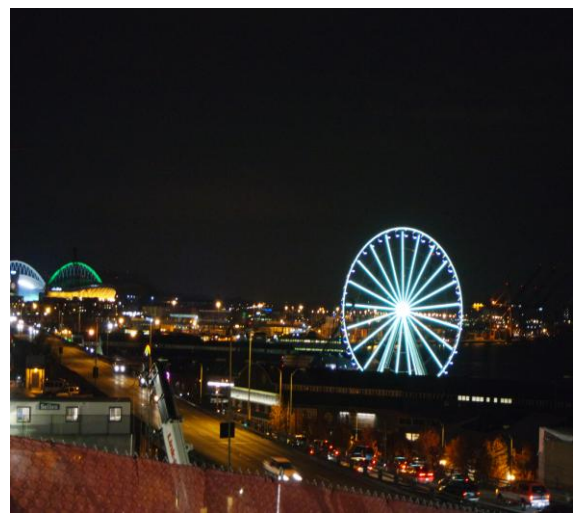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교환학생을 올 때는 걱정도 많았다. 4학년 2학기에 파견되는 것이었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그것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활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떠한 로망도 있었다. 하지만 밴쿠버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속에서 내가 동화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사실 밴쿠버가 겨울이면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 쉽게 우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같이 온 사람들도 그렇고, 현지에서 사귀 좋은 친구들이 있어 항상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다. Langara에서의 수업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수업을 통해 writing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4개월이란 시간은 영어를 배우기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한다. 영어에 대해 적응되어갈 때 한국으로 돌아와야 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교환학생의 경험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ynn canon



Seattle



Deep cove



English Bay



Granvile Island



White rock

